

진정한 민주적 삶에 대한 물음

김용욱 작 「새 춘향전」

최근, 전 고려대 교수인 김용욱씨가 독자들에게 또다른 새로움을 던져 주었다. 김교수의 아홉번째 책인 영화 시나리오 「새 춘향전」(통나무)이 그것이다. 나는 작년 10월 도봉산 등정에서 김교수에게서 이 책의 집필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사·철에 능한 그에게서 영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앞선 여러 책들이 우리 사회의 빈약하고 독선적인 사상계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계몽, 자극이었다면, 이 책은 그의 일관된 태도가 단지 영화에 옮겨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작품에 앞서 쓴 긴 '서설'에서 그는 우리 영화계에 내재되어 있는 세 기둥(나운규 「아리랑」, 유현목 「오발탄」, 임권택 「씨받이」)의 잠재적 힘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 영화담당 주체세력인 작가 및 감독들의 철학(의식)의 빈곤과 公論 등에서 행해지는 검열의 문제를 힐책한다. 그는 한국영화의 제4기등을 창조하기 위해 영화주체세력의 휴머니티 전반에 걸친 통찰력을 키우는 철학의 훈련과 자유로운 창작 여건 속에서의 한국영화의 새로운 몸부림을 기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뜨거운 열정에서 나온 이 「새 춘향전」은 기존의 「춘향전」에서 축적된 우리 민족의 집단적 氣를 단지 과거의 삶의 재현이 아닌, 오늘 나의 의식의 역사적 상징태로 전개하려 하고 있다. 즉, 춘향이 살던 '왕정시대'인 이조시대 사회의 허구적 윤리 속에서, 춘향이와 이도령은 그 사회의 허위와 힘있는 자들의 논리의 세계를 몸 전체로 부대끼며 사랑의 실천으로 깨버리려 한다. 부패한 관리 변화도에 대한 춘향이의 도전, 이도령이 과거 시험장에서 왕게 진언한 '백성의 시대' 예고

의 문제발언은 결국 그 시대를 넘을 수 없어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민주화'의 열기가 그 본질적 의미를 잃은 채 자꾸 추상화, 정략화되고 있는 이때, 이 작품은 진정한 민중이 주인이 되는(민주) 삶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우리는 21세기를 앞둔 지금에도 얼마만큼 왕정시대의 틀이 뿌리깊고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춘향이는, 이도령은, 변학도는, 왕은 누구인가? 또한 그들은 얼마만큼 그 시대를 통찰하고 그들의 삶을 투영하는가?

이 시나리오가 영화화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긴 하지만, 이 원작을 잘 살려 영화를 만든다면 그 동안 딱 떨어진 과거의 낭만적 史劇이나 아사로서의 고전극이 아닌, 과거의 상징성을 오늘 여기의 실존적 삶에 재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영화가 탄생되리라 기대해 본다.

강석인

경기도 동두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영어

사회학의 계보와 이론 체계화

羅昌柱 편저 「정치사회학요론」

현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 폭발의 시대, 시장지향적 시대 등 여러가지 의미로 시대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대의 특징은 細分化의 시대인 것이다. 직업의 분화, 기술의 분화, 학문의 분화는 더욱 전문화추세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세분화의 추이는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점차 특수화(specification)의 경향을 띠고 있다.

나창주교수의 「정치사회학요론」(大旺社)은 그 용어가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학과 사회학이 합성된 복합명사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학문체계를 수립하는데도 그만큼 어려움이 뒤따르고 할 수 있다. 어떤 한가지 학문과 다른 학문을 하나의 체계로 성립시킨다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은 학문의 분화를 통하여 새로운 전공영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회과학은 학문의 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전공영역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치사회학 강의가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행하여지기는 80년대 들어서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학과 사회학의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전연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온 것은 아니다. 립셋은 그의 「정치사회학」(Political Sociology)에서 "정치사회학은 사회와 더불어 시작하여 사회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연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학이 권력의 소재(property of power), 권력의 동태성(dynamics of power)을 집중적으로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정치사회학은 권력의 흐름(flow of power)을 중심으로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주는 동태적 사회관계를 중심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 책은 5편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정치사회학의 성격 및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2편에서는 정치학과 사회학에서 지금까지 원용하고 있는 제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학의 태두인 콩트에서부터 시작하여 스펜스, 마르크스, 베버, 뒤르켐, 파슨스, 그리고 파레토, 밀즈에 이르기까지 사회학의 계보와 함께 주요 이론적 모델을 체계화시켜 놓고 있다. 그다음 제3편에서는 현대의 주요사회학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제이론을 기술하고 있는데 기능주의 이론, 갈등이론, 교환이론, 계층이론을 각각의 이론적 문제점과 함께 비판적 시각까지를 곁들이고 있어 사회과학도의 안목을 키워주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 제4편과 제5편에서는 사회구조와 인접학문을 개관하여 줌으로써 정치사회학 연구영역의 확대가능성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특히 이책의 핵심내용이 되고 있는 제2편의 정치사회학의 모형은 정치질서나 사회질서를 각각 어떻게 접목시켜 이론화해가고 있는가를 천착하여 매우 눈길을 끌고 있다. 단순한 이론의 소개나 나열이 아니라 사회변화와 정치변화를 하나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구조기능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정치사회학 연구의 집대성이라는 면에서 지금까지 산만한 정치사회학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배영기

서울 강서구 화곡2동 158-24 · 승의여전 교수

黃松文 에세이

사랑의 이름으로
바람의 이름으로

내 가슴 속에는 한알의 능금이 있습니다.
능금빛 소녀의 능금불이 있습니다.
소녀의 능금불이 빨강계 타고르고 있습니다.
빼빼를 뽑던 언덕에서 불을 붙히던
첫사랑의 무지개 빛깔이 있습니다.
아아 내 가슴 속에는 할매가 끓여 주시던
시래기국 냄새가 구수합니다.....

志成文化社

서울·중로구송인2동1423
(대치빌딩 205호)
☎ 233-5554

國語學研叢

虛堂 李東林 博士
停年退任紀念論叢

- I. 音韻論
- II. 文法論
- III. 意味論
- IV. 國語史
- V. 國語學史

集文堂

서울시 중구 신당동 251-1
☎ 252-4657, 234-2227

韓國
古代史
探索

그 구성과 문제점
확장권 지음
日善企劃
☎ 744-5733/765-4956

韓人の 원조는 신석기
시대부터, 즉 알타이어족
통일체가 형성되기 이전
인 신탈타이어인의 한 종
족으로, 그것이 濊人→濊
貊人→韓人으로 진화한
과정과 그동안 通史 체계
에 논급되어 왔던 부분을
새로운 자료에 의해 생동
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정가 4,500원

온라인 컴퓨터 사식
조판 시스템 가동

- 레자프린트 교정
- 입력에서 출력까지 즉시 처리
- 각종 서체 완비
- 컴퓨터가 내장된 수동사식 연결

인주 컴퓨터 정성용 팀어드리닝
진영사
☎ 733-5755

- 컴퓨터사진식사 · 수동사진식사
- 광고 기획 · 편집 · 제작 대행